

골롬반 선교

VOL.131

2025년 여름·가을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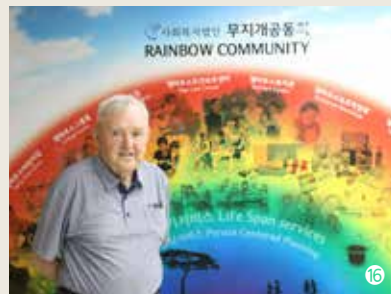
이 희년은 희망을 찾을 뿐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 희망의 표징이
되라고 초대합니다.

이는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 교황 레오 14세,
아프리카 희망 순례단 미사에서(2025. 5. 2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25년 여름가을호 | VOL.131

편집실 Tel. 02-927-2705 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s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03 마음을 여는 글 | 권세오
희망의 표지가 됩시다

생물 다양성

04 민 디오니시오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08 알바로 마르티네스
뉴케 마푸(어머니 지구)께 허락을 구했나요?

10 전쟁 순교자 75주기 | 스테파니 맥나마라
하느님의 종, 토머스 쿠삭 신부

14 축하합니다 | 편집실
이정락 베라노 신부의 사제서품식

16 기억할 선교사 | 故 천노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8 권은정이 만난 선교사 | 오기백 신부 편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

22 칠레 이야기 | 조성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24 미얀마 이야기 | 이제훈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26 한국 선교 이야기 | 동리춘
희망의 뜻을 세운 젊은이들

28 평신도선교사 | 모나 에스테반
기쁨, 사랑, 헌신의 여정

30 후원회 32 골롬반 소식



표지: 6월 7일 사제품을 받은 이정락 베라노 신부가 이튿날 첫미사에
서, 내년 초에 파견될 미얀마 전통 모자를 쓰고 신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
다. 촬영: 대구대교구 신서성당 박재민 바오로



| 마음을 여는 글 |

희망의 표지가 됩시다

권세오 곤잘로 신부·한국지부장



『골롬반선교』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
하게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 순례자로서 살아가고 있습
니다. 이 순례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노력이 달렸
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이 여정이
희망의 순례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어머니 지구와 가장 고통받는 이
들에게 희망의 표지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하
여 땅이 울부짖는 소리에 또, 절망에 빠진 이들의 외침
에 귀 기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삶으로써 실
천할 때, 비로소 희망의 순례자가 됩니다. 어떤 희망입
니까? 그것은 복음의 희망입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가장 가난한 이들 곁으로 파견되어 세상 곳곳에서 복
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도 그 기쁜
소식을 선교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선교사들
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여정 중
에 있는 나그네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75년 전 한국
전쟁 때 순교한 본회 하느님의 종과, 그 후손의 글을
통해 재회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와서 평
생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고 발달장애인의 외침에 응
답하였으며, 지난 6월 1일 지상의 순례를 마친 故 천노
엘 신부님을 추모합니다. 동시에 그 사명을 이어가는
새 사제 탄생을 기뻐합니다. 또한, 하느님이 지으신 창
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선교사들의 노력을 소개하면
서, 본회 우선순위 사명인 생물 다양성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전환과 회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과 폭우로 큰 피해를 보고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을 하느님의 보살핌에 맡기며, 우리의
기도 안에서 연대합니다. 신음하는 지구이지만, 어김
없이 하늘은 높아지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며, 곧 감사
의 시간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
음의 희망이 여러분과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와 피조물에 두루 넘치시길 빕니다.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민 디오니시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이며 1969년에 사제품을 받고 그해 한국에 왔다. 광주대교구, 서울대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한국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지부 역사실 책임자로 일했다. 현재 골롬반 서울 본부의 하우스 매니저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작이셨던 아버지는 농부가 아니었지만, 대부분 삼촌과 사촌은 농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과 직후에 아일랜드 농촌은 도시보다 형편이 나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배

급표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가게에서 몇몇 물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모두 가정마다 직접 채소를 심고, 집에서 빵을 굽고, 닭, 칠면조, 거위, 돼지를 길렀기 때문에 가게에서 배급표로 살 것은 밀가루, 소금, 설

서울 본부 하우스 매니저인 필자는 본부 구석구석까지 살뜰히 살피고 챙긴다. 정원의 꽃, 나무, 돌 등 어느 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점심 후 백일홍 나무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필자의 고향 아일랜드 리트림. 숲과 호수가 있고 다양한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촬영: Naomi Lee

탕 정도였습니다. 우드바인(영국산 저가 담배)도 살 수 있었는데, 집에 흡연자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 사곤 했습니다. 소고기가 먹고 싶으면, 가장 가까운(약 16km 떨어진) 마을로 가서 사야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특별한 날이 아니면 소고기 먹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스페인산 양파, 사이프러스에서 수입한 감자가 국산보다 더 저렴해지면서 우리는 채소 재배와 가축 사육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들이 가게에 가서 채소를 사 먹는 게 충격이었고 우스꽝스럽다고 느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집에서 빵을 직접 만드는 일은 좀 더 지속되었지만, 그마저도 다양한 빵을 파는 가게가 생기면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농부들에게 목초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면서 가축 분뇨로 만든 액비를 온 들판에 뿌리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에게 건초 대신 사일리지(편집자: 땅속 저장고에서 발효시킨 풀로 만든 사료)를 먹이라고 장려했습니다. 수확량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집약적 농업을 지향하며 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예전에 마을 사람들은 우물물을 길어 마셔도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금 그 물을 마셨다가는 병이 날 정도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유도했던 이러한 정책이 낳은 직접적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환경이 파괴된 현 상황을 농부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풀을 확보하게 된 우리는 더 많은 소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 삼촌이 젖소 6마리를 키우던 시절과 달리, 그 아들은 젖소 56마리와 육우 500~6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가 많아지니 메탄가스도 더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또 비난의 화살을 농부들에게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소에게 무엇을 먹여야 방귀가 줄어들까? 트림을 덜 할까? 하며, 아마도 이 문제를 연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정부 정책이 초래한 것입니다. 사일리지 사료는 지하수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책임은 농부들 몫이라고 말합니다. 사일리지 저장고를 짓도록 보조금을 준 것은 정작 정부였는데 말입니다.

아일랜드 제 고향 리트림의 땅은 매우 척박합니다. 토층 윗부분이 얇은 데다 토질도 농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숲을 조성하기에는 최적입니다. 정부는 농사 잘되는 땅으로 바꾸기 위해 시범 농장을 만들고 큰 예산을 20년 넘게 투자했습니다만, 결국 그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폐쇄된 지 1년도 안 되어 시범 농장은 주변 농장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한 때 푸르르던 초원은 금세 사초(편집자: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과 풀)로 뒤덮인 들판이 되었습니다. 당국은 방향을 바꾸어 조림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지금 리트림 전역은 벌목을 해도 될 만큼 숲이 무성해

졌지만, 나무들은 베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벌목하는 것보다 스웨덴에서 목재를 수입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의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 새들이 농작물을 먹어 치운다는 이유로 새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일을 두고 그 어리석음을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들이 없어지자 이듬해에 곤충이 급증했고, 곤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자 해결책이라고 나온 조치가 곤충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어리석음의 늪에 점점

필자가 직접 찍은 서울 본부 정원 풍경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생물종들이 개체 수가 줄었거나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 다람쥐와 여우는 필자의 고향 숲에서 필자의 조카가 촬영하였다. 촬영: Naomi Lee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자연의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물종 하나가 사라지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그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러고는 해결해 보겠다며 이리저리 허둥대지만, 더 큰 피해만 초래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저는 “구덩이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면, 삼질을 멈추라”라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모든 나라는 저마다 고유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그 고유성에 맞지 않는 새로운 생태계를 억지로 이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알래스카에서 바나나를 재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타히티에 이글루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1963년에 나란히 사제품을 받은 두 명의 골롬반 선교사들은 환경에 관한 인식이 시대를 앞서 있었습니

다. 한국에 함께 파견된 두 신부는 설요한과 노아곶입니다. 흑산도, 목포, 광주, 사북 ...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었습니다. 설요한 신부는 이미 다음 생으로 떠나갔지만, 노아곶 신부는 여전히 땅을 돌보며 자기 주변에 아름다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골롬반 본부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뿐 아니라 정원도 포함입니다. 정원에 나무와 꽃, 풀, 이끼, 새, 고양이, 벌레 등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기에 방문객들이 느끼는 것만큼 감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방문객들은 “아스팔트 도시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가졌으니 참으로 큰 복이네요!”라고 말해 줍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듯 올해 한국도 가뭄, 산불, 폭우, 폭염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뉴스에서는 100년, 200년 만의 기록적인 일이라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만의 기록이라고 매년 뉴스 진행자가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4

뉴케 마푸(어머니 지구)께 허락을 구했나요?

알바로 마르티네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칠레 출신이며 2003년 사제품을 받았다. 칠레 지부장과 본회 총본부 참사위원을 지냈다. 올해 8월부터 미국지부에서 일하고 있다.



필자는 토종 나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만드는 굴착 작업을 진행하였다.

미리우에 알토는 칠레 남부 비오비오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 중 일부는 양봉을 하고 꿀을 원료로 한 제품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이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소나무와 유칼립투스 등 단일 수종을 생산하는 산업용 조림지가 확장하면서 이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칼립투스 3년생은 하루에 20리터, 20년생은 하루에 200리터에 달하는 물을 소비합니다. 외래종 소나무가 토양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오염시켜, 야생 동물의 서식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이 심각해졌고, 대형 산불에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토종 나무와 야생 식물이 자리를 빼앗겨 그 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일 작물 재배지 확산은 꿀벌 수분을 어렵게 하고 꿀 생산량을 떨어뜨리며, 이 지역 생물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수년 전, 저는 이곳 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토종 나무를 심기 위해 깊은 우물을 파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매우 길고 복잡했습니다. 땅에 바윗돌이 많았고, 지하수는 깊은 곳에 있어 우물을 파는 데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여러 해를 기다리고 수소문하는 중에 위성 조사를 했는데, 제가 우물을 파고자 했던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담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한 소규모 업체가 우물을 팔 수 있다고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다시 적합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을 시도했는데, 마푸체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기술을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엔 나무 막대를, 지금은 구리철사를 양손에 들고 “물의 눈”을 찾는 이 기술을 일컬어 마푸체 말로 “사오리(zahori)”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마침내 우물을 팔 완벽한 지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투자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몇몇 친구의 도움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구리철사를 들고 온 남자는 11미터 깊이에 물이 있다고 확신하며 말했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북돋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기도를 하기 전이었기에, 성수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성 비오와 성모

님 메달도 가져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온통 바위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굴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우물 파기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라 이웃들도 일손을 보태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물을 파고 길어 올려도 되는지 어머니 대지께 허락을 구했나요?”

저는 이튿날 아침 일찍 그 장소로 돌아가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수를 뿌리고 어머니 대지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땅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지하 9미터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13미터 깊이에서는 일정한 수량이 확보되어 곧 그 지역에 심을 나무들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심을 이 토종 나무들은 생물 다양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기증해 준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 용기를 얻었고,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생명과의 만남, 곧 물!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측이 부정적이더라도 계속 길을 찾으라는 것, 자기 꿈을 믿고 따르라는 것, 우물을 팔 수 있다며 연락해 온 소규모 업체와 구리 막대를 든 사람, 일손을 거든 이웃들, 내게 질문했던 마을 주민...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허락을 구한다”는 말의 지혜를 되새깁니다. 이는 우리가 어머니 대지(마푸체어로 ‘뉴케 마푸’, 지구를 뜻하기도 함)의 소유자가 아니며, 창조주 하느님과 피조물 전체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고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



하느님의 종, 토머스 쿠삭 신부

스테파니 맥나마라

토머스 쿠삭 신부의 조카이다. 올봄 전쟁 순교자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함께 와서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전국을 순례했다.



“친애하는 쿠삭 부인께,
이 편지가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축하가 될까요?
부디 둘 다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마음은
자식을 떠나보내고 비탄해 하시겠지만, 고귀한 가
톨릭 어머니는 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에 기쁨과 자부
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토머스 쿠삭 신
부의 평생 친구 톰 포이 신부가 친구 어머니께 보낸
편지다.

전쟁 순교자 패트릭 브레넌 몬시뇰, 토머스 쿠삭 신
부, 존 오브라이언 신부¹의 포로 생활과 죽음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고 기록도 되어 있다. 나는 여기서 토
머스 쿠삭(이하 토머스)의 삶 - 아들, 형제, 삼촌, 친구,
사제- 을 전하고자 한다. (* 이 글은 스테파니 씨가 외
삼촌 토머스 신부와 그 어머니이자 필자의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기록, 증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토머스는 1910년 10월 23일, 아일랜드 리스캐너의

토머스 쿠삭 신부(뒷줄 가운데)가
목포 산정동성당에서 사목했을 때
(1939년 부활 영세식 후)



본회 전쟁 순교자 (왼쪽부터) 존 오브라이언 신부,
패트릭 브레넌 몬시뇰, 토머스 쿠삭 신부



벨리코튼에서 태어났다. 아름다운 외딴 마을 벨리코튼
은 매우 끈끈한 공동체였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동안
일제에 의해 수감되고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마치 어
머니께 안부를 묻는 듯, “글로카 모라의 소식은 어떤가
요?”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그
노래가 고향 벨리코튼을 떠올리게 했다고 짐작한다.

어릴 때부터 토머스는 사제가 되고 싶었다. 1928년
2월 8일, 그의 어머니는 존 블로워 신부²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에게 내년엔 달간파크³에 가기를 간절히 원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열흘 후 편지에는 이렇게 덧붙
였다. “몇 해 전부터 아들이 중국에 선교하러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을 막으려는 뜻
은 없지만, 그래도 국내 선교를 가기를 더 원합니다.”
다음 편지에는 이렇게도 적었다. “토머스가 지난 성탄
절 방학에 집에 왔을 때, 저희는 선교에 따르는 위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
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
헌했을 때 시메온이 한 말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질
리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루카 2,34-35 참조)를
떠올리게 한다. 토머스는 1934년 12월 21일에 사제품
을 받고, 1935년 한국으로 갔다.

토머스의 친구였던 댄 코널리 신부는 토머스를 이
렇게 회고했다. “그는 키가 중간 정도에 다부진 체격

을 가졌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분별력이 있었으며
학생 시절부터 성실하였고, 깊은 신심을 소유해 존경
을 받았습니다. 쾌활하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본디 친
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정평이 났는데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에 한국인들은 그를 ‘철의 사나
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빨리 배운 것은 한
국인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격의 없이 어울렸기 때
문입니다.”

또 어떤 젊은 동료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토머스 신부처럼 자기 개인 시간과 생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완전히 신자들에게 내어준 사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느슨해진 적이 없었고, 그를
찾아가면 언제나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보좌신부
들이 쉴 시간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록과 증언을 확인하며, 하느님께서 토머스에
게 주신 특별한 죽음이 그의 삶을 자연스럽게 완성시
켰다고 느꼈다.

태평양전쟁 동안 임오웬 몬시뇰, 구인란 주교 등
아일랜드 신부 22명이 일제에 의해 억류되었다. 수
감과 연금된 채 지낸 4년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불안한 시기였음을 토머스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1941년 7월부터 1946년 2월까지 누구에게서도 편

지(소식)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쟁 마지막 석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있던 곳에서 약 800km 떨어진 산악지대로⁴ 옮겨졌습니다. 수감과 연금 생활은 끔찍해서 아무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쌀 세 줍밖에 먹을 수 없었고, 지독한 이질이 퍼졌는데도 약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이질에 걸린 젊은 신부 한 분⁵이 돌아가셨고, 다른 두 분도 이질에 걸렸습니다. 전쟁이 한 달만 더 계속되었다면 우리 대부분이 죽었을 것입니다.”

토머스의 유일한 고향 휴가는 1947년 성탄 때부터 1949년 초까지였다.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가족은 그 시절을 행복하게 기억했다. 친척 메리 앤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간혀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추웠는지, 미사를 드리지 못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럼에도 그는 간절히 기

도했고, 기도의 힘이 결국 자신을 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부드러움과 따뜻함, 친절함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949년 초, 토머스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이 한국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토머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다.

“어머니, 이렇게 이별을 잘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큰 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돌아오니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일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1950년 7월 17일, 미군 사령부는 목포 지역 방어가 어려워지자 골롬반 신부들에게 부산으로 피난을 가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목포에 있던 패트릭 브레넌, 토머스 쿠삭, 존 오브라이언은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지난 5월, 전쟁 순교자 3위의 후손들이 방한하여, 토머스 쿠삭 등 하느님의 종 3위의 유해를 묻은 곳에 세운 전쟁 순교 기념비를 찾았다. 맨 왼쪽은 김윤배 판크라시오 선생이다. 대전 가톨릭신학교 내 성직자 묘원



① 토머스 신부가 사목했던 목포 산정동성당을 방문한 사촌과 조카 가족이다. 이날 오수성 신부(오른쪽)가 이들과 함께했다. ② 김윤배 선생은 살해된 순교자들의 유해를 수습하여 자택 성모상 뒤에 모셨다. ③ 순교자 가족들이 한국지부를 찾았을 때 지부장 곤잘로 신부가 필자에게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④ 순교자의 후손들이 광주가톨릭박물관에 전시된 순교자들의 기록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의 마지막 메시지는 미카엘 오코너 신부를 통해 훗날 어머니께 전해졌다. “토머스는 떠날 수 있었지만, 신자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본당을 떠난다면 평생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였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켜 드려 마음 아파했지만, 저는 토머스가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과 함께하시고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4일, 세 신부는 북한군에 체포 압송되어 9월 24일 대전 목동에서 살해되었다. 시신은 우물에 던져졌고, 1953년 우물이 비워질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화장된 유해는 목동 언덕 묘지에 묻혔는데, 1996년에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김윤배⁶

선생이 유해를 수습해 12년간 자택 성모상 뒤에 모셨다가 2008년 대전 신학교 내 성직자 묘지에 안장했다.

1952년 『파이스트』(아일랜드 골롬반 잡지) 6월호는 이렇게 기록했다. “하느님께서 세 신부의 희생을 풍성한 영혼의 수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올해, 광주에서는 골롬반회가 교구를 맡은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천 명이 넘는 성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 가족의 슬픔을 덜어주었다. 토머스의 친구 톰 포이 신부가 보낸 편지 마지막 줄은 이렇게 마친다.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쿠삭 부인, 당신은 최고의 아들을 두셨습니다.” ✕

1 패트릭 브레넌 몬시뇰, 토머스 쿠삭 신부, 존 오브라이언 신부는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에 속한 골롬반회 선교사들이다. 본문에서는 81위 일람표의 표기를 따랐으며, 순교자들이 생전에 사용한 한국 이름은 각각 안 파트리치오, 고 토마스, 오 요한이다.

2 존 블로윈 신부는 본회 창설자이며 골롬반 신학교 총장을 지냈다.

3 달간파크는 아일랜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교와 본부가 있는 곳을 아일랜드 사람들이 두루 부르는 명칭이다.

4 일제에 의해 강원도 홍천성당 사제관에 억류되어 연금 생활을 하였다.

5 길 헨리 신부는 광복 9일 전, 연금된 상태에서 숨을 거두었다.

6 김윤배 판크라시오 선생은 순교자들이 겪은 일을 조사, 기록하여 교회에 증언하는 등 순교자들을 기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이바지했다.

이정락 베라노 신부의 사제 수품을 축하합니다!

2025년 6월 7일 낮 2시, 대구대교구 신서성당에서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주례로 이정락 베라노 신부의 사제서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출신 본당에서 본당 신자들과 함께한 서품식이었기에 더욱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조환길 대주교님을 비롯해, 아름답고 복된 서품식

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신서성당 김문상 디오니시오 신부님과 본당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교사제가 탄생하기까지 기도와 후원으로 늘 함께해 주셨던 후원회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촬영: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박재민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 발달장애인의 친구 故 천노엘 신부 묘비에 새긴 말씀 —

발달장애인의 벗으로서 45년 넘게 헌신한 천노엘 신부가 6월 1일 새벽(현지 시각), 아일랜드 달간파크 골롭반 요양원에서 평화 가운데 선종하였습니다. 향년 93세.

6월 7일 달간파크 성당에서 봉헌한 천노엘 신부의 장례미사에서 고인이 생전에 미리 선택하여 준비한 독서, 복음이 봉독되었고, 기리암 신부가 고인이 준비한 마지막 메시지를 영어와 한국어로 대독하였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인사를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전하면서, 천노엘 신부가 영원한 천상 안식을 누리시도록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고인이 선택해 둔 장례미사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루카 24,36-49)”입니다. 

“

제 신학과 영성은 이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인류의 울부짖음(외침)을 듣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례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은 현대의 예언자들입니다. 저는 43년 동안 엠마우스 친구들과 함께 살며, 제 눈이 열려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인은 단순히 ‘불쌍히 여는 감정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직접 뛰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민의 렌즈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현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 천노엘 신부

① 천노엘 신부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을 때(맨 아래, 1957년)
② 본당사목 시절(1970년, 광주 북동)



“

엠마우스 가족은 삼촌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장애인 수용 시설에 살았던 여아 자매와 만남을 계기로 엠마우스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녀에게 병자성사를 주고, 존엄한 장례를 치러주셨죠. 그 만남 이후 삼촌은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살아 있는, 그리고 일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광주에는 여러 그룹홈과 훈련·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모두 여아 자매가 마지막으로 남긴 감사함이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빛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모범에 감사합니다.”

— 가족 대표 조카의 감사 인사



- ① 엠마우스 그룹홈 초창기
- ② 김여아 마리아 자매의 묘를 찾은 천노엘 신부
- ③ 한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6년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 ④ 천노엘 신부는 교회 안에서도 장애인들이 똑같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실천했다
- ⑤ 함께하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으로 초대했던 천노엘 신부



엠마우스 축구단과 함께



사진 제공: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

- 금정축 맞은 오기백 신부 편 -



인터뷰·권은정 루이제 작가

전문 인터뷰이자 번역가, 작가이다. 한겨레신문 해외통신원, 국무총리실 홍보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윤공회 대주교의 북한 교회 이야기』, 『불꽃이 향기가 되어』 등 인터뷰, 구술 책을 작업했고, 신문과 잡지에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수십 년 전에 나온 광주대교구사 흑산 본당 편에 보좌 시절 오기백(다니엘 오키프) 신부 사진이 있다. 짙은 곱슬머리를 가진 발랄하게만 보이는 청년이다. 겨

우 23세 나이로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으로 온 그는 넉 달 만에 흑산도로 갔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오기백 신부는 올해 금정축을 맞이했다.



어린 시절 다니엘 오키프(맨 오른쪽). 삼촌의 사제서품식에 참석했을 때



사제서품식을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50년 전, 사제서품식에서

아일랜드 사람 중 집안에 신부나 수녀가 한 사람도 없는 이를 찾기는 아마 힘들 것이다. 오기백 신부 집안에는 영국 스코틀랜드에 사시는 삼촌이 계셨다. 어릴 적 아버지 따라 삼촌 서품식에 참석했는데, 나도 사제가 되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한다. 일반 대학에서 수학과 스페인어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가톨릭 학생회와 레지오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졸업 후에 골롬반회에 입회하게 되었다. 남미 특히, 페루로 날아가 선교사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선교지는 한국으로 정해졌고 다니엘 오키프는 1976년 2월 매우 추운 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독재정권이 말기를 치닫고 있었던 그때 한국사회는 흑한의 날씨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 오 신부는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부천 지역 공장 노동자들이었다.

“새로운 사회를 접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회를 알게 되고 그 나라를 이해하게 되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축복받았어요.”

그가 노동사목으로 방향을 굳힌 계기는 초기에 광

주에서 지낼 때 본 〈빛고을〉 주보였다. 노동 관련 기사가 그를 건드렸다.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세례를 받은 세대다. 달간파크에서 공부할 때 해방신학 등의 신학 이론이 학과목에 두루 포진해 있었다. 세상으로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교황 요한 23세의 말씀이 현장에 투영된 시기였다.

목포 연동 본당을 거쳐 서울로 올라온 그는 부천 지역에서 거의 십 년간 30대를 온전히 청년노동자들과 지냈다. 거기서 현장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본당 중심 교회입니다. 전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당시 청년 중에는 웅장한 교회 건물에 주눅이 들어있었고 스스로 그런 성당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정집을 구해 작은 공동체를 꾸렸다. 그 집 현관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식탁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었다. 한 끼 밤이 소중했던 이들은 기꺼이 밥상에 왔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나눔의 시간을 즐겼다. 모임에서 종교가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 동일방직 노조 활동가 이충각 씨도 함께 있었다. 오 신부는 자신이 그들과

‘동반’했다고 한다. 성직자와 신자들 사이의 수직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함께 걷는 동반자였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신자 청년노동자들이 모였다. 그중 어느 청년노동자의 나눔을 오기백 신부는 잊지 못하고 있다.

“그 청년은 산재로 왼손 손가락 세 개를 잃어버렸어요. 늘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지냈어요. 그런데 토마스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상처에 손을 넣어 보고서야 주님을 고백하는 구절을 읽고 나눔을 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을 사람들 앞에 드러 보일 수 있다면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유롭게 설 수 있을 때 그것이 부활이 아닌가요?’ 내가 공부한 어떤 신학 이론도 그 말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님 부활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만나며 하느님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다음 그는 지역으로 들어가 빈민사목을 맡았다. 서울 신림동과 봉천동에서 도시 철거민들과 6년 넘게 함께 있었다.

그렇게 현장에서 보람차게 지내던 그는 어느 날 서울 본부로 들어왔다. 동료들 요청으로 두 번의 지부장직을 맡아 일했다. 골롬반회 한국 진출 70주년에 지금의 선교센터(서울 동소문동)를 지어 올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도왔다.

그는 한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로 세계인의 날에 상을 받기도 했다(편집자: 2021년 제14회 세계의 날, 대한민국 올해의 이민자 대통령 표창). 선교사가 그 사회에 얼마나 잘 스며들었는지 그 징표가 아닐까.

그는 충돌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오기백 신부는 선교사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부드러운 리더십을 소유한 오기백 신부는 한국지부장을 두 번(12년)이나 지냈다. 사진은 지부장 시절인 2003년, 선교센터를 완공하고 축복미사를 드렸을 때다.



①③ 부천 지역에서 노동사목을 하던 시절 ② 흑산성당 보좌 때 동료 나경식 신부와 함께
④ 2021년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⑤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파견 교육과 귀국한 선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⑥ 목포 연동성당에서 사목할 때 ⑦ 한국지부 신학원장을 맡고 있다.

“그 사회에 자극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속한 사회, 한 우물에 갇혀 지내기 쉬워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서로가 형제로 지내기 위해서는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멀리 떨어진 형제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이자 스스로도 변화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가 복음을 전해 받습니다.”

지금은 신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얼마 전 새 사제를 내느라 무척 바빴다. 그의 50년 전 모습을 떠올린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같은 길을 걸어갈 동료가 생겼으니 무엇보다 반갑고요. 새로운 길에 나선 이의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는 올여름 아일랜드에 가서 서품 동기들을 만나 서품 5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돌아왔다. 고향 코크 바닷가에서 카메라에 또 모습을 담을 것이다. 흑산도 앞 바다에서 찍은 사진 속 짙은 색 곱슬머리는 백발로 바뀌었지만 열정은 변함이 없다.

기백이 가득 찬 오기백 신부! ✕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조성근 제노비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08년 본회 평신도선교사로 칠레에 파견되어 3년을 살면서 사제성소를 깨달았다. 2019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칠레로 파견되었다. 현재 수도 산티아고 외곽 지역 성 마티아스 본당의 주임신부로 사목하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 ...

이번 부활시기에 저에게 떠오른 묵상 주제(1요한 4,10)였습니다. '왜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칠레의 도시빈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선교사제로 살고 있을까?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하느님은 나를 ...'

많은들 하느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이 없으니 하느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연히 며칠 전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묵상할 아주 값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목하는 지역은 가난한 사회의 취약 계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여러 사회문제가 공존합니다.

필자가 주임으로 사목하는 칠레 산티아고 교구 성 마티아스 본당 신자들과 함께

마약과 알코올중독,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과 관련한 문제 등이 심각하게 얹혀있는데, 그래서 안전 문제와 외로움 때문에 주민들은 개와 고양이를 많이 키웁니다. 문제는 너무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집을 나서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 애교를 부렸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고양이를 어루만져 주며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양이와 저는 애증 관계가 깊습니다. 맨날 우리 집 지붕에 똥을 누는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사제관 1층 지붕에 올라와 싸놓는데, 바로 2층 제 서재 앞이라 냄새가 코 앞에서 진동합니다. 치우려고 지붕에 올라가 보면 어째 제 것보다 크고 냄새도 지독합니다.



사제관 2층 창문을 열면 보이는 풍경



필자가 사목하는 본당

이제 1층 지붕은 온 동네 고양이 공용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초도 뿌려보고 철조망도 깔고 초음파 기계 사용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는데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고양이들은 해결책을 찾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고안한 방법으로 (고양이 주인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새충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고양이들을 귀찮게 하여 쫓아내려는 것이지요.

아무튼 다시 이 애증 관계인 고양이를 어루만지던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득 '이 애교쟁이는 참 귀엽긴 한데, 지붕에 똥을 싸면 엄청나게 미워지는 걸 보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느님은 내가 당신께 애교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아무리 큰 똥을 싸놓아도 나를 안쓰러워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새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귀찮다고 식초를 뿌리거나 철조망을 치거나 새충을 쏘지 않으시며, 그저 우리를 사랑하실 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는 것은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죄 많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큰 기쁨임과 동시에 큰 도전입니다. 나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제로서 선교사로 서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지금 이곳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살면서 누군가와 말다툼하고 싸우고 또 마음속으로 욕하기도 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분 사랑을 닮으려 노력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흘러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당신을 닮으려 노력했고 그래서 내 인생은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많은 유혹에 빠지고 원치 않아도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느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도록 그 사랑을 닮으려 날마다 노력해야겠습니다.

새충의 탄알을 부드러운 젤리로 바꾸었습니다. 저 고양이들의 용기를 허락할 수는 없지만 고양이들을 좋아하기에 그들을 아프게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



애증의 이웃집 고양이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수품 이듬해인 2015년에 미얀마로 파견되었다. 미얀마 북부 카친주 미치나 교구에서 가정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구 성 파트리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골롬반회 대표이다.

2024년 12월 24일 성 베드로 대성당, 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거룩한 문을 여시며 2025년 정기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표어 아래, 우리는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이어집니다.

희년은 유대교 전통에서 유래했으며, 본질은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과 회복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희년에는 땅과 자유를 되찾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

었습니다. 이 희년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집을 잃고 떠도는 이, 일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이, 꿈을 빼앗긴 젊은 이, 병든 몸과 마음에 신음하는 노인,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은 이들의 고통과 함께하며, 우리는 희년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특히, 이곳 미얀마 내전은 이러한 고통을 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수많은 사람

미얀마 미치나교구에서 가정사목을 맡은 필자가 가족 워크숍을 열었을 때



작년과 올해 이곳에 홍수 피해가 잦았다.



내전 중이기 때문에 폭탄 위협을 피하기 위해 지하 벙커를 곳곳에 만들어 놓았다.

이 터전을 잃고 고통에 휘말렸습니다. 군사정권의 폭력에 의해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피난처를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가 난민 캠프나 임시 피난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피난처와 난민 캠프는 식량과 물, 의료 지원이 부족해 힘겹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유대는 끊어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터를 잃어버린 이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전은 물리적 피해를 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가족이 분리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내전 중에 많은 이가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생사도 모른 채 지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같이 살지 못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으며,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성장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에 평생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희망을 이곳 사람들과 함께 바라봅니다. 미얀마 내전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이곳 사람들과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희년은 바로, 여기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품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미얀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희년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희년을 살아가며 선포할 진리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과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억압받고 상처 입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희망의 뜻을 세운 젊은이들

동리춘 베드로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9년 1월 본회 창설 백 년 만에 중국인 최초 골롬반회 사제가 되었고, 이듬해 가을,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현재 서울대교구 광희문성지 성당 중국어 미사 등 재한 중국인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지부 참사위원이다.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서 ‘양안사지(兩岸四地: 중국 내륙, 대만, 홍콩, 재한 유학생)’ 청년 교류 활동이 있었습니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선교사 포함 47명 청년이 함께한 이 행사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 참가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첫날, 우리는 제주공항에서 만나 먼저, 용두암 근처 골롬반 사제관으로 가서 시작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동안 긴 여정에 지친 몸과 마음이 풍성히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복자 김기량 기념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주도 첫 순교자인 김기량 복자의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나무 십자가가 있었는데, 청년들은 각자 삶에서 지고 있는 ‘십자가’를 종이에 적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예식을 하게 되었고, 자기의 삶이 특히, 고통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래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 이시돌 목장을 총괄하는 이어돈 미카엘(골롬반회)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어돈

양안사지 청년들이 제주 골롬반 사제관에 들러 미사를 드린 후 기념 촬영을 하였다.



신부님은 이시돌 목장의 창립자인 故 임피제 맥글린치 신부님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임피제 신부님은 한국전쟁 직후 제주도로 파견되어 황폐해진 섬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선교 사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도 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아동과 여성 교육, 노년층 삶의 질 향상(호스피스 포함) 등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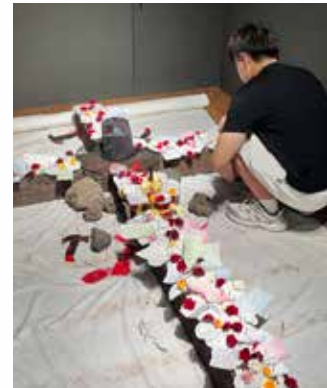
또, 이어돈 신부님은 목장을 안내하시며 경주마들과 노령 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주마의 활동 기간은 3~5년에 불과한데, 은퇴 후 관리 비용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어돈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생이 있듯, 말에게도 ‘마생’이 있습니다. 이곳 말들은 병들거나 늙어 자연스럽게 생을 마칠 때까지 정성을 다한 돌봄을 받습니다.” 사람과 하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초대받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며 보호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생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성 이시돌 피정센터 원장 양창우 요셉 신부님(골롬반회)과 함께 ‘새미 은총의 동산’을 걸었습니다. 신부님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 순간부터 승천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여정을 더욱 깊이 바라보도록 동반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용수성지를 찾았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조선 땅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뜻깊은 곳입니다.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하이 인근 김가항(金家巷)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님은 8월 31일 라파엘 호를 타고 조선을 향해 출항하였으나, 3일 만에 풍랑을 만나 28일 동안 표류하다가 제주



(왼쪽) 성 이시돌 목장 새미 은총의 동산에서 참가 청년이 기도하고 있다. (오른쪽) 용수성지에서 십자가 예절을 했을 때, 청년들은 저마다의 십자가를 적은 종이를 봉헌하였다.



도 용수리에 표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거센 파도가 때때로 몰아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뜻을 세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넷째 날에는 4·3평화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주가 겪었던 깊은 고통과 상처를 들었습니다. 희생되어 그 땅에 잠들어 있는 분들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선혈 위에 피어난 ‘동백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며, 평화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문화의 밤’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서로 왔음을 다시금 깊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로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추억을 나누며, 손을 꼭 잡고 어깨를 맞대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하늘과 땅에 하나 되어 이야기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우정과 신앙의 씨앗은 이제 막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반드시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마음에 품은 희망의 불씨를 주변 모든 이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

기쁨, 사랑, 헌신의 여정

모나 에스테반 평신도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필리핀 출신이며 피지에서 활동했고 최근까지 파키스탄 남부 하이데라바드 교구 관할 바딘 지역에서 소수 부족 여성들을 동반하였다.

저는 파키스탄 남부 바딘 지역에서 파카라리콜리 부족과 편자브 부족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다양한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곳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이 소명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순례길 위에서 날마다 행복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 다. 각 부족 공동체가 교회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쫓 지켜보면서 시행착오를 거듭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도전 과제 중 어느 하나 쉽게 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진심 어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조금씩 이 공동체 속으로 스며들었고 어느덧 저는 이들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골롬반회 엘버트 발바스트로 신부(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모나 에스테반 선교사(뒤쪽 가운데 성모상 옆), 필자의 집에서 함께 묵주기도 모임을 했을 때



얼마 전 어느 주일, 편자브 부족 여성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저는 떨듯이 기뻐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을 위한 모임이 마련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모임에서 우리는 성모님에 대한 각자의 신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 모임에서 우리는 가슴 뭉클한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처음 계획했던 활동은 집집을 방문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야 참여한 분들이 묵주기도에 서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나씩 익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여섯 번째 가정을 방문할 즈음에는 모두 묵주기도를 자연스럽게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저는 이 여성들이 직접 묵주기도를 이끌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두세 명만 제외하고 대부분 여성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 우리는 우리 중에 마리아 씨를 리더로 뽑았고, 그가 가끔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가 주었습니다.

모임이 꾸준히 이어지던 어느 날, 어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다른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소녀 네 명이 자발적으로 모임에 함께한 것입니다. 목소리도 조용한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묵주기도 각 신비를 이끄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성모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주 모여 집집을 찾아가 기도하는 이들의 헌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억눌리고(편집자: 소수 부족 여성 중에 전통적 사회제도에서 하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스도교인은 소수이기에 더 차별을 받고 있다.) 자기 재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회 안에서 이들 스스로 모임을 이끌어가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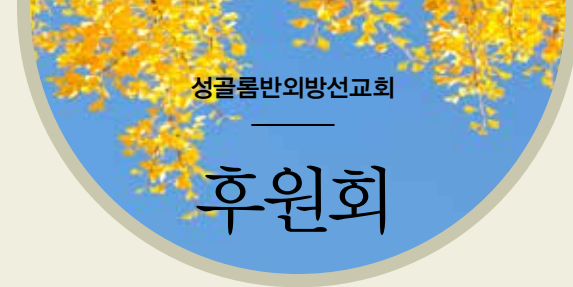


필자(정가운데)는 모임 여성들과 함께 묵주기도 성월 분당 활동에 참여했다(2024년 10월).

는 진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늘 놀라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 안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모님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헌신은 자신들의 신앙뿐 아니라, 함께하는 소녀들의 신앙을 키워줍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바쁘게 살면서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의 열정과 헌신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묵주기도 모임을 했는데, 한 자매가 이끄는 가운데, 저와 제 가족을 위한 지향으로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아껴주고 지지해 주는 이 모임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저는 이 여성들이 늘 성모님처럼 용기 있게 사랑의 길을 걸어갈 기도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바딘 지역 곳곳에 사랑을 퍼뜨리는 이들의 순례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 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12월 말까지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매년 1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에 문의하기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02-929-1366
이메일: ks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062-371-5824
이메일: kjfund@columban.or.kr

「골롬반선교」 잡지는 연 3회 발송(4, 9, 12월 예정)하며 이때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께 지로 용지를 동봉합니다.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지역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 봉헌

후원회 월례미사

25년 9월 - 12월

미사 봉헌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신청해 주세요.

	9월	10월	11월	12월	장 소	문 의
서울(명동)	5일	3일	7일(피정)	5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서울(돈암동)	26일	31일	28일	26일	돈암동 본부	02-929-2977
인천	9일	14일	11일	9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0일	15일	12일	10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2일	17일	14일	12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6일	24일	28일	26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3일	21일	25일	-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4일	22일	26일	-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5일	23일	27일	-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6일	24일	28일	-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1일	-	-	11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7일	22일	19일	-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16일	-	18일	-	서귀 복자 성당	064-733-5523
	-	21일	-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서울(명동) 10월 3일(개천절) 미사 있습니다.
- 원주, 안산 10월 미사는 추석 연휴로 한 주 미뤄집니다.
- 전라지역 10월은 본회 사정으로 한 주 앞당깁니다.
〈피정〉 목포, 전주: 오전 10시~오후 3시 광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미사〉 순천: 오전 10시
- 목포, 순천, 전주, 광주, 제주 12월 미사 없습니다.

서울지역 후원회
“무료 피정 안내”는 35쪽에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온라인 신청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4,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골롬반 소식

김종근, 강승원, 권태문 신부 발령 이동

남미지부 칠레에서 일했던 김종근 도밍고 신부가 한국지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본회 총본부 제2 참사로 6년 동안 홍콩 본부에서 소임했던 강승원 요셉 신부는 안식년을 마치고, 미국지부로 파견되었습니다. 9월 1일 자로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가 한국지부로 발령을 받아 서울후원회와 성소국을 맡았습니다. 공동체의 역동 속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운 곳, 사람, 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선교사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승원 신부

권태문 신부

노혜인 선교사 파견

노혜인 안나 평신도선교사가 4월부터 필리핀에서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4월 14일, 서울 본부 성당에서 민 디오니시오 신부 주례로 파견미사를 봉헌할 때 노혜인 선교사가 나누는 소감을 전합니다. “한국지부 골롬반 가족들, 후원회원분들, 직원분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선교의 삶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좀 더 큰 세계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노혜인 선교사는 2011년 필리핀에 처음 파견되어 빈민 지역에서 선교하였고, 2019년부터 한국지부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로서 일하면서, 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등 지구를 돌보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노혜인 선교사와 민 디오니시오 신부

8월 15일 아일랜드에서 봉헌한 사제서품 기념 미사

축하합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아일랜드 달간파크 성당에서 올해 사제수품 희년을 맞은 아일랜드 출신 선교사제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70주년을 맞은 말라키 한래타 신부, 회경축을 맞은 선 맥널티 신부를 비롯해 70주년, 60주년, 50주년을 맞은 사제들이 가족과 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느님께 감사드리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지부 오기백 다니엘 신부(사진 오른쪽)가 올해 금경

축을 맞아 희년 미사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지부는 오기백 신부를 포함해 안광훈 로벨도 신부(60주년), 양창우 요셉 신부(25주년), 이경자 크리스티나 선교사(25주년), 손선영 카타리나 선교사(25주년, 미안바 골롬반회)가 희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겨울호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롬반 소식

이우빈 신학생 첫 서약식 및 첫 해외 선교 발령

이우빈 라우렌시오 신학생의 첫 서약식을, 6월 23일 서울 본부에서 지부장 권세오 곤잘로 신부 주례로 봉헌하였습니다. 신학생 오기백 다니엘 신부를 비롯해 선배 선교사들과 동료 신학생들, 후원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선교사제로 향하는 길에서 더 정진하며 의무를 다할 것을 하느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서약식 이어 독서직과 시종직을 수여받았습니다. 대전 출신으로 2019년에 입회한 이우빈 신학생은 이제 본회 유기획원이 되었으며, 대만으로 첫 해외선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빈 신학생

지원사제 소식

본회 지원사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외선교 준비를 했던 서울대교구 오병웅 베드로 신부가 남미지부 칠레로 발령을 받고 9월 1일 출국하였습니다. 8월 25일, 골롬반선교센터에서 교구 사제와 본회 선교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지부장 권세오 곤잘로 신부와 지원사제 담당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가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욥 주교를 방문해 지원사제 파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사진). 구요비 주교는 “선교지에서 기쁘게 잘 살길 바란다”라고 격려하면서, 칠레 골롬반회에 오 신부를 잘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병웅 신부는 일정 기간(3년 이상) 골롬반회 안에서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한편, 본회 지원사제로서 2023년에 페루로 파견되었던 대구대교구 구승모 바오로 신부가 임기를 마치고, 피데이 도농(교구가 소속 사제를 사제가 부족한 선교지 교회에 일정 기간 파견) 사제로 페루 교회에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왼쪽부터 남승원 신부, 오병웅 신부, 구요비 주교, 권세오 신부

성요셉 요셉 신부, 박요셉 요셉 신부 선교지 생활 시작

작년 11월 15일, 명동대성당에서 나란히 사제품을 받은 세 명 중 두 사제가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서울대교구 성북동성당에서 사목 경험을 쌓았던 성요셉 요셉 신부(사진 가운데)는 6월 17일, 신학생 시절 첫 선교를 했던 남미 칠레 산티아고로 파견되었습니다. 7월 16일에는 서울대교구 문래동성당에서 활동했던 박요셉 요셉 신부(사진 왼쪽)가 페루로 파견돼 안데스에

서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주교구 김기량성당에서 사목 실습을 했던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부는 대만으로 발령을 받고 출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선교사제가 되는 길에 정진했던 이들이 선교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선교사로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롬반 소식

안재선 제이슨 신부의 생태 미술 전시회



미술사목을 하는 안재선 신부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미술가 안 라도반 씨와 공동 기획한 <혼과 생명을 지닌 모든 피조물을 위한 미술전>을 8월 16일~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산다미아노에서 열었습니다. “피조물과의 돌봄과 동행”을 주제로 한국·필리핀·미국·독일·영국 등 7개국 작가 36명이 참여해, 성 프

란치스코의 영성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 73점을 선보였습니다.

“행동하는 미술사목”을 지향하는 안재선 제이슨 신부는 가톨릭신문과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동물들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소명을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면서 “가장 작은 생명 안에도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하게 하는 미술사목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새 이정락 베라노 사제 수품

성골롬반외방선교회에 새 사제가 탄생하였습니다. 6월 7일 낮 2시, 대구대교구 신서성당에서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주례로 이정락 베라노 신부의 사제서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새 사제는 8월부터 제주교구 김기량성당에서 사목 경험을 쌓고 있으며, 내년 초에 미얀마 미치나 지역으로 파견됩니다. 관련 글: 14~15쪽



6월 9일, 서울 본부에서의 첫 미사를 봉헌할 때, 박요섭 요셉 신부와 새 사제(오른쪽)

하느님의 종 7위 75주기 맞아, 전쟁 순교자 후손들 방한

본회 전쟁 순교자 하느님의 종 3위(고 안토니오 신부, 손 프란치스코 신부, 고 토마스 신부)의 후손들과 가족이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자 순교 75주기를 맞아 아일랜드에서 온 이들은 제주·대전·목포·광주·춘천·홍천·횡성·강릉·삼척을 방문해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했습니다. 여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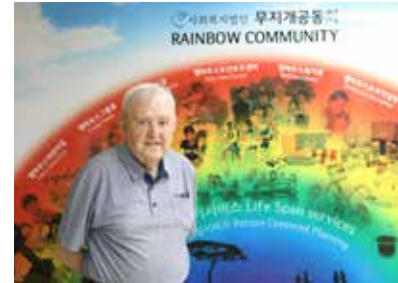
에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시몬 대주교, 춘천교구장 김주영 시몬 주교를 방문하였고, 각 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5월 23일에는 서울 골롬반 본부에서 한국지부장 주례로 환영 및 순교 75주기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관련 글: 10~13쪽



골롬반 소식



천노엘 신부 유해 아일랜드와 한국에 안장



한국에서 70년 가까이 사목하며 특별히 발달장애인의 벗으로서 45년 넘게 헌신한 천노엘 신부가 6월 1일 새벽 12시 30분(현지 시각), 아일랜드 달간파크 골롬반 요양원에서 평화 가운데 선종하였습니다. 향년 93세.

현지 장례미사는 달간파크성당에서 봉헌하였고, 유해는 고인의 뜻에 따라 아일랜드 골롬반 묘원과 광주대교구 담양 성직자 묘원에 나누어 모셨습니다. 고인의 조카가 유해를 모시고 한국에 왔으며, 7월 15일에 광주대교구 염주동성당에서 교구장 옥현진 시몬 대주교 주례로 김희중 하지노 대주교,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한 사제단과 신자, 엠마우스 공동체가 추모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고인은 평생 “외침”이라는 낱말을 곁에 두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외침, 상처 입은 지구 피조물의 외침, 고통받고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였고, 그의 외침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대화 안에서, 또 사회와 연대하며 확장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충실한 사제 천노엘 신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아멘.”

- 1932년 12월 19일: 아일랜드 리머릭 출생
- 1956년 12월 22일: 사제 수품
- 1957년 12월 10일: 한국 도착
- 1958년~1981년: 본당사목(광주대교구 장성·해남·광주 북동·여수 동산동·여수 서교동·광주 원동·목포 경동·광주 북동·광주 농성동·나주 영산포, 제주교구 주교좌중앙)
- 1981년: 엠마우스 그룹홈 설치(한국 최초 그룹홈)
- 1985년~2008년: 엠마우스복지관 관장
- 2001년~2024년 4월: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대표이사
- 2016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국 정부 특별귀화증서 수여)
- 2024년 6월: 아일랜드 귀국
- 2025년 6월 1일: 선종

서울후원회 무료 피정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루카 19,9)

- 일시** 11월 7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명동가톨릭회관 1층
- 강사** 오전: 김성대 안드레아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오후: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골롬반회)
- 미사** 병자들을 위한 치유와 축복 - 양창우 요셉 신부 집전

광주가톨릭박물관에서 본회 독립유공자 선교사 활약상 소개

광주가톨릭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한국 독립운동과 천주교>를 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천주교인들의 활동과 정신을 소개한 이 전시는 3~4월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던 같은 전시회 내용에 광주·전남·제주 지역 천주교인들의 활약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도 제주도민에게 반전, 항일 정신을 불어넣었다는 이유로 탄압받았던 본회 나 토마스 신부, 서 아오싱 신부, 손 파트리치오 신부를 조명하였습니다. 이들은 훗날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사진 제공: 광주가톨릭박물관



열린미사에 초대합니다!

9월부터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4시,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열린미사를 봉헌합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선교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선교사뿐 아니라 선교지 사람들의 삶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열린 시간이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미사는 주일미사로 봉헌합니다.

문의 선교센터 02-953-0613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해외선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필리핀에서 “영성의 해” 원장으로서 수련기를 보내는 신학생들을 동반했던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가 한국지부 성소 담당으로 발령을 받았다. 사진은 올여름까지 1년 간의 영성의 해를 보냈던 여러 나라 출신 본회 신학생들과 양성자들로 왼쪽부터 신학생 나딤(필리핀), 크리스토퍼 까미노 신부, 권태문 신부, 신학생 에타와(키리바시)과 비오(피지)이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35세 이하 젊은이

때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일 10:30~16: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93-14)

문의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vocation@columban.or.kr

사제성소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주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nameire@gmail.com
(해외선교를 희망하는 교구/수도회 사제 대상)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